



2026년 1월 11일 | 주현후제1주

자녀 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요한일서3:18)

기독교대한감리회 아름다운주님의교회 공동사역자 김영석 김진형 김효정 신주환 오미숙 이학재 한창천

## 아름다운주님의공동체

그리스도를닮기원하는사랑과나눔의 BCJC  
균등과균형의교육가치를추구하는 **다림교육**

2026 아름다운주님의교회주일공동체예배

#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마름입니다.

2026.1.11.

## BCJC 소식

**환영합니다** |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공동체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영혼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모인 모든 공동체 가족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장모임안내** | 오늘은 2026년 첫 목장모임을 갖습니다. 새로운 목장에서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고 목장이름과 목자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식사안내** | 오늘 공동체 식사는 김혜경권사님과 하혜정 집사님이 수고해 주십니다. 귀한 헌신에 감사와 축복을 드리며 함께 귀한 사랑의 식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예배안내** | 다음주는 2026년 임직예배로 드립니다. 올 한 해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와 집사로 살아가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주님 앞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직분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서류발급안내** | 2025년 연말정산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교회 밴드를 확인해 주세요.

**교회출입시스템변경안내** | 교회 출입 시스템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밴드를 참조해 주세요.

## 축복의말씀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잠언 3:5~6

## 아름다운어린이예배

매주일오전11시 | 교회학교실

## 목장모임

매주일오후1시 | 교회모임실

## 매일묵상

매일오전5시

## 다림교육

매일 | 다림교육센터

##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마름입니다.

사도행전8:29~31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 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 목장나눔

**나눔1. 반갑습니다.** 2026년 첫 목장모임입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지만 새로운 목장이니 먼저 서로 자기 소개하며 인사를 나누시죠.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새롭게 모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용 나눔 : 잘 지냈지?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말해볼까? 우리가 못 보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로 얘기해 볼까?)

**나눔2. 본격적인 나눔에 앞서 가볍게 이야기를 열어볼까요?** 내인생 최고의 '오픈런'이나 '장거리 이동'은 무엇이었나요? 맛집을 가기 위해, 혹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아니면 콘서트를 보기 위해 멀리까지 가보거나 오랫동안 기다려본 경험이 있나요? 그때의 기분이 어땠는지 나눠봐요.

(청소년용 나눔 : 오늘 본문에 나온 에디오피아내시는 엄청난 부자였고 높은 권력자였어.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왕복 6개월이나 걸리는 거리를 달려왔다. 요즘 말로 하면 '찐팬'의 열정이지. 너희는 무언가를 위해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 본 적 있어? 있다면 어떤 것들이지?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나눔3. “견디고 듣고 읽다 보면 늘어가는 영적 지식”** 이 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모든 것이 그렇죠?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누군가 제게 독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으면 저는 늘 이렇게 대답 하죠. ‘그냥 읽는거야.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렇게 읽다 보면 어느새 내 눈에 책이 들어와.’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일단 어렵다 거부하고 보지는 않나요?

(청소년용 나눔 : 이야기씨, 집에 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뜻을 하나도 몰랐대. 빌립이 “이해되?”라고 물으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알아?”라고 하면서도 계속 읽었어. 보통 우리 같으면 “아, 몰라! 재미없어!” 하고 덮었을 텐데 말이야. 솔직히 성경 읽거나 큐티할 때 무슨 생각들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고 짜증 났던 적 있어? 이해 안 될 때 너희는 어떻게 해? 계속 읽다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때가 있다는 말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나눔4. 오늘 말씀에 내시는 뜻도 모르면서 성경을 읽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을 저는 거룩한 미련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빌립의 순종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빌립은 길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명령에 무턱대로 광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내시가 등장하죠. 그도 무턱대고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나죠. 결국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소년용 나눔 : 목사님이 그러셨어. 뜻을 몰라도 성경을 불들고 끙끙대는 시간은 시간 낭비가 아니래. 그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깨달음의 선생님(빌립)'을 만날 수 있대.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아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길이 열리고 도움이 손길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 너희 생각은 어때?)

**나눔5. 설교에 등장한 에디오피아 내시는 당대 최고 강대국인 '쿠시 왕국'의 재정 장관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왕복 6개월이 걸리는 4,000km의 위험한 여행 길에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예배'하고 싶다는 영혼의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빈자리'가 있나요? 세상의 성공이나 소유로도 해결되지 않는 나만의 허무함이나 갈급함이 있다면 무엇인지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청소년용 나눔 : 우리는 진짜 평계를 많이 대지? 공부가 어렵다. 시간이 없다. 아무도 안 도와준다. 돈이 없다. 오만가지 평계를 대는데 사실 다 평계고 나에게 마음이 없는 거죠. 간절함이 없는 거야. 올해는 뭐든 간절하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보지 않을래? 일단 무조건 매달려보면 어떨까? 너희는 올해 진짜 뭐에 매달려보고 싶어?)

**나눔6.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내가 결단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청소년용 나눔 :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배운 점은 뭐가 있을까?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 안에 원가 꿈틀거리는 것이 있었어?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 같은 것은 없었니? 그게 깨달음이거든. 있었다면 나눠보자. 그리고 바로 당장 바꾸고 싶은 것 있다면 말해봐.)